

용문석굴 고양동과 골굴석굴의 비교연구

이분희*

- I. 머리말
- II. 용문석굴 고양동의 현황
- III. 용문석굴 고양동과 골굴석굴과의 비교
- IV. 맺음말

I. 머리말

北魏의 수도 평성에서 대규모의 운강석굴 개착이 이루어진 뒤, 효문제가 낙양으로 천도한 태화 18년(太和, 494년)경 이후 낙양은 ‘佛國’이라 불렸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불교가 발전하였다. 용문석굴은 이러한 시대상을 반영하듯 河南省 洛陽市에서 서남쪽으로 13km 떨어진 곳에 대규모로 개착되었다. 암석은 석회암이며, 伊河를 끼고 양쪽 龍門山(서산)과 香山(동산)의 암벽면에 석굴이 분포되어 있다. 길이는 남북으로는 1,000Km나 되며, 수십만구의 불상이 현존한다.¹⁾ (도 1).

북위 전기를 대표하는 석굴은 운강석굴이며, 이를 계승하여 발전시킨 북위 후기의 대표석굴이 용문석굴이다. 그러므로 용문석굴은 중국미술사에서 북위에 조성된 석굴사원과 불상조영에 있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용문석굴은 주로 북위시기부터 唐代까지 조성되었는데, 이 석굴에 새겨진 불상들은 우아하고 귀족적인 북위시기 불상양식과 당당하고 세련된 당대의 불상양식으로 나눌 수 있다.

또한 용문석굴은 우리나라의 삼국시대와 통일신라시대 석굴사원과 불상에 많은 영향을 주었던 석굴이다. 뿐만 아니라 용문석굴에는 많은 조성기가 남아 있어 석굴사원 개착과 불상 조상에

* 불교중앙박물관 학예팀장

1) 이곳은 옛날에 ‘이궐’이라 불렸으며, 道元이 지은 『水經注』, 「伊水」에서는 “두 산이 마주 대하고 있어 바라보면 마치 궐문과 같다. 이수가 그 사이를 지나 북쪽으로 흐르기 때문에 伊闕이라고 부른다”라 하였다. 대략 수양제 이후 점차 용문이라 일컬어졌다. 원위청 저, 안영길 역, 「龍門石窟에 나타난 北朝의 彫刻藝術」, 『美術史論壇』6(한국미술연구소, 1998), p.148.



도1. 용문석굴 전경

대한 풍부한 자료를 제공한다.

그러므로 본 글에서는 중국의 대표석굴인 용문석굴과 우리나라 석굴사원인 골굴석굴을 비교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그러나 용문석굴이 워낙 방대한 석굴이므로, 이 가운데 가장 먼저 개착되었으며, 그 규모가 크며, 내용도 풍부한 고양동 석굴을 중심으로 비교하여 고찰해보고자 한다.

II. 용문석굴 고양동의 현황

1. 용문석굴 개요

용문석굴은 서쪽 용문산에 28개의 굴이, 동쪽 향산에 7개굴이 있고, 이 대표굴 외에도 2,000여 개의 작은 굴과 감실로 구성되어 있다. 각 굴과 그 굴 사이에 많은 상들이 조성되었고, 북위시대에 서산부터 개착되기 시작하여 北宋代까지 조성되었다(도 2).

용문석굴은 운강석굴의 재질이 조각하기 손쉬운 사암인 것에 비해 단단한 석회암이어서 석굴을 개착하는데 매우 난점이 많았을 것으로 사료된다. 용문석굴의 이러한 재질적 특징이 석굴과 불상 규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된다.

용문석굴에는 가장 오래된 古陽洞을 포함하여 북위시대 석굴이 대다수가 있는데, 이들 석굴 안에 새겨진 많은 불상들은 북위가 낙양에 40년간 도읍하던 시기에 조성된 것으로, 당시 조상활동이 매우 번성하였음을 알려준다. 또한 唐代 貞觀 4년(630년)에서 天寶 14년(755년) 사이의 125년간에도 조상활동이 활발했는데 주요 조상굴로는 봉선사동, 경선사동 등이 있다. 용문석굴 굴감에서 북위시대의 것은 전체의 30%를 차지하며, 당대의 것은 대략 60%정도를 차지한다.²⁾

2) 용문석굴을 개착된 시기별로 정리해보면, 宿白은 크게 3시기로(1기:효문제~ 선무제 시기, 2기: 호



도2. 용문석굴 위치도

용문석굴에는 북위에서 당나라에 걸쳐 조성된 2,780여기가 넘는 조상기가 존재한다. 그 중 가장 주목받는 것은 중국 서예사의 정수로 꼽히는 북위의 「용문 20품」이다. 이 가운데 고양동에 19품이 존재하는데, 태화 19년 불감의 명문을 포함하여 많은 조성문에 이를 공양한 이들과 조성연대, 발원자의 사회적 지위 등을 알 수 있는 내용이 적혀 있다.³⁾

북위시대 용문석굴 구조는 크게 두 가지로 圓形圓頂式과 方形平頂式이다. 원형원정식은 평면이 말발굽모양의 것으로 이른바 ‘마제궁릉형’이라 하며, 천정은 둥근천정의 圓頂인 것으로 고양동, 蓮花洞, 賓陽洞이 예에 속한다. 방형평정은 평면이 네모꼴의 방형인 것이며 천정이 平頂인 형식으로, 魏字洞, 火燒洞, 石窟洞, 路洞 등을 들 수 있다.⁴⁾

당대의 석굴양식도 북위시대와 비슷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어, 원형원정형식과 방형평정형

태후 시기, 3기: 효창 이후 시기) 보고 있으며 溫玉成은 5기(1기: 493~ 499년, 2기: 500~ 510년, 3기: 511년~ 517년, 4기: 518년~ 534년, 5기: 535~ 580)로 구분하였다. 고양동은 1기와 2기에 속하며, 1기는 대형굴은 완성되지 않고 소형불감이 제작되는 시기로 보고 있다. 또, 2기는 비로소 용문석굴의 모양이 갖추어지고 있는 시기로 고양동의 정면 벽의 3大像이나 8大龕이 완성되는 시기로 보고 있다. 문무양, 「中國 初期石窟에 나타난 法華信仰의 특징」, 『한국선학』31(한국선학회, 2012), p.275.

- 3) 용문 20품의 글씨 가운데 고양동에 19품의 글씨가 있으므로, 고양동은 서예사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석굴이다. 특히 고양동의 19품의 글씨는 495년에 발표된 ‘북쪽 언어 사용 금지령’을 지키려는 듯 모두 한자로 쓰여 있어 고양동은 漢化과정의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정현숙, 「문헌을 통해 본 북위의 국가이념과 용문 고양동의 연관성」, 『서지학연구』35, 서지학회, 2006. pp.287-290.
- 4) 천득염, 김준오, 「龍門石窟의 塔形浮彫 研究」, 『건축사역사연구』20(한국건축역사학회, 2011), p.45.

식 두 가지 형식으로 분류할 수 있다. 평면이 원형이고 천정이 둥근 형식은 題跋洞, 賓陽南北洞, 樞鼓臺中北洞이며, 평면이 방형이고 천정이 평천정인 형식으로 敬善寺洞, 雙洞, 萬佛洞, 師者洞, 看經寺洞을 들 수 있다.

이처럼 석굴의 평면 형태는 간다라와 운강에서 보이는 평면의 연속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으나 형태상으로 차이가 있다. 용문석굴에서는 인도나 운강석굴에서 보이는 석굴 안에 중심 탑주를 세우는 塔廟窟의⁵⁾ 형식은 보이지 않는다.⁶⁾ 그러나 낙양지역에서 용문석굴 양식을 계승하고 용문 다음으로 규모가 큰 공현석굴에서는 북위시대 주요한 석굴형식으로서 탑묘굴이 조성되었다. 그러므로 용문석굴에 탑묘굴 형식이 없는 것은 단단한 석굴 암질로 인해 탑묘굴의 조성이 어려워 다른 구조를 택한 것이 아닌가 짐작된다. 그러나 이러한 재질적 한계로만 예배자들이 의식의 중심이었던 스투파를 조성하지 않았다고 이해하기 어렵다. 아마 중국석굴의 전개과정에서 이미 예배대상의 중심이 불상으로 옮겨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용문석굴은 특징적으로 전실, 후실의 분리가 없으며 주랑과 측랑 같은 복잡한 건물형태와 차이티야 창의 개념을 적용한 평면형태가 보이지 않는 것도 같은 이유일 수 있으나, 고대 중국의 새로운 해석에 의한 석굴조영이라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내부에서의 목구조형 공룡천정 형태는 많이 사라졌으며, 외부장식적인 요소가 강한 목구조물의 형식을 석굴 외벽에 설치한 흔적이 남아 있음을 볼 수 있다.⁷⁾

용문석굴과 운강석굴의 다른 차이는 운강석굴은 불상이 대불이어서 예배자들의 참배할 공간이 없는 것에 비해 용문석굴은 불상을 참배할 수 있는 공간이 확대된 것이다.⁸⁾ 이는 아마 탑묘굴의 유무와 마찬가지로 용문석굴이 검은 청색의 단단한 석회암이어서 정교하고 예리한 조각을 만들기에는 안성맞춤이었으나 대불을 만들기에는 적합하지 않았던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⁹⁾

5) 중국 석굴에 석굴의 중심에 방형의 탑주를 두는 형식은 인도의 후기굴에 스투파에 불상이 봉안된 것을 앞으로 옮기면서 주위에 열주를 없앤 독특한 형식이다.

6) 양은경은 중국석굴의 구조와 기능에 따라 7가지 유형으로 구분했다. 첫째, 석굴내에 중심탑주를 세우는 형식인 탑묘굴, 이는 석굴 내부에 불탑 혹은 탑 기둥을 설치한 것이다. 둘째, 중심 탑주가 없는 석굴 형식인 佛殿窟, 이는 불교조각들로만 가득한 석굴로 佛壇을 설치한 불단군은 사원 내부의 대전 혹은 전각 내부의 중심에 설치한 불단과 동일하다. 셋째, 승려들의 거주와 禪行을 주요 목적으로 한 僧房窟, 넷째, 탑묘굴과 불전굴의 내부에 큰 불상을 조각한 大像窟, 다섯째, 불전의 내부에 단을 설치하고 불상을 안치한 형식은 불단굴, 여섯째, 승방굴 중 전문적인 선행을 목적으로 한 小型禪窟(나한굴), 일곱째, 소형 禪窟이 조를 이룬 禪窟群 이다. 석굴 자체는 하나의 사원이며 승려와 신도들이 예배, 공양, 일상생활, 참선을 행한 장소인 것이다. 양은경, 「중국 불교석굴의 개념과 분포, 발달사」, 『중국사연구』29(2004, 4), pp.277-278.

7) 천득염, 김준오, 앞의 논문(2011), p.45.

8) 溫玉成, 「불교예술과 중국문화3-6세기의 중국석굴사예술」, 『미술사연구』10(미술사연구회, 1996), p.1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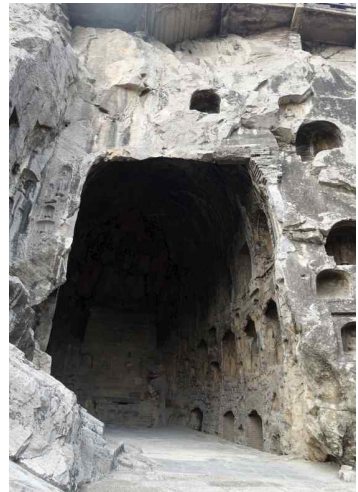
9) 이러한 석회암은 열렬하고 관능적이며 육감적인 아름다움보다는 고요하고 우아한 정신적인 아름다움

용문석굴의 중요한 특징은 조상기가 200여중에 이를 정도로 명문 내용이 풍부하다는 것이다. 고양동에는 총 58종의 조상기가 존재하는데 王들의 조상기가 7, 僧侶 11, 比丘尼 7, 邑社 계열 등의 집단조상기가 16, 官職名이 있는 경우가 11로 52개의 조상기를 통해 고양동 시주자의 주요계층을 확인할 수 있다. 즉 북위사회의 상류층을 중심으로 조상활동이 일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¹⁰⁾ 또한 조상기를 통해 이 굴의 조영이 승속의 남녀 모두가 등장하는 것을 볼 때 당시 석굴에 불상을 공양하고 그 조상기를 새겨 넣는 것이 얼마나 성행했었는지를 알 수 있다.¹¹⁾ 다음은 용문석굴 가운데 고양동 석굴을 중심으로 그 구조와 특징에 대해 살펴보겠다.

2. 고양동 석굴

1) 현황

이 석굴은 서쪽 산의 남쪽 가장자리에 위치하며 큰 규모와 풍부한 내용을 갖고 있는데, 정식 명칭은 ‘石窟寺’이다.¹²⁾ 예전 사진을 보면 입구가 허물어져 벽돌로 꾸며놓았는데, 입구는 아치문이며 2층에는 사각형의 光窓까지 마련하였었는데 현재는 본 모습으로 정비하였다(도3).



도3, 고양동 석굴

고양동은 용문석굴 가운데 가장 먼저 개착된 굴이다. 또한 이 굴은 다른 굴과는 달리 천연적인 석회동으로 알려져 있어서 일부 조상들은 용문석굴이 본격적으로 개착되기 이전부터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이 석굴은 산의 남쪽 가장자리에 위치하여 서쪽에 앉아 동쪽을 보는 형태로 평면은 말발굽모양의 U자형 평면구조이다. 크기는 높이가 11.1m, 넓이 6.9m, 깊이 13.55m이다. (도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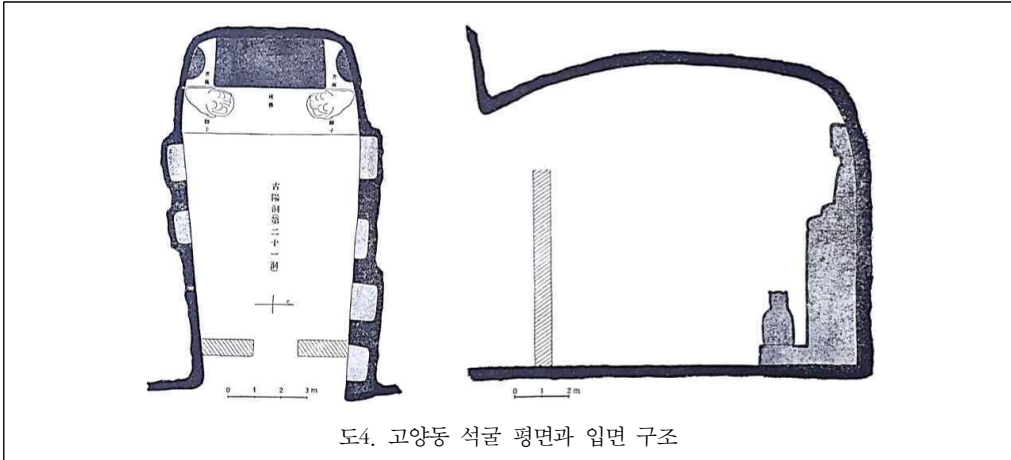
내부 정벽(正壁, 서쪽벽)에는 주존인 좌불과 두 협시보살상이 봉안되어 있다. 삼존상의 좌우

다음을 표현하는데 훨씬 적합하여 용문석굴 특유의 귀족적이고 우아한 불상을 조성한 것으로 보인다. 문명대, 『서역 실크로드 탐사기』(한연, 1994), p.136.

10) 문무왕, 「북위불교와 석굴조형 연구」(동국대학교 불교학과 박사학위논문, 2006), pp.128-1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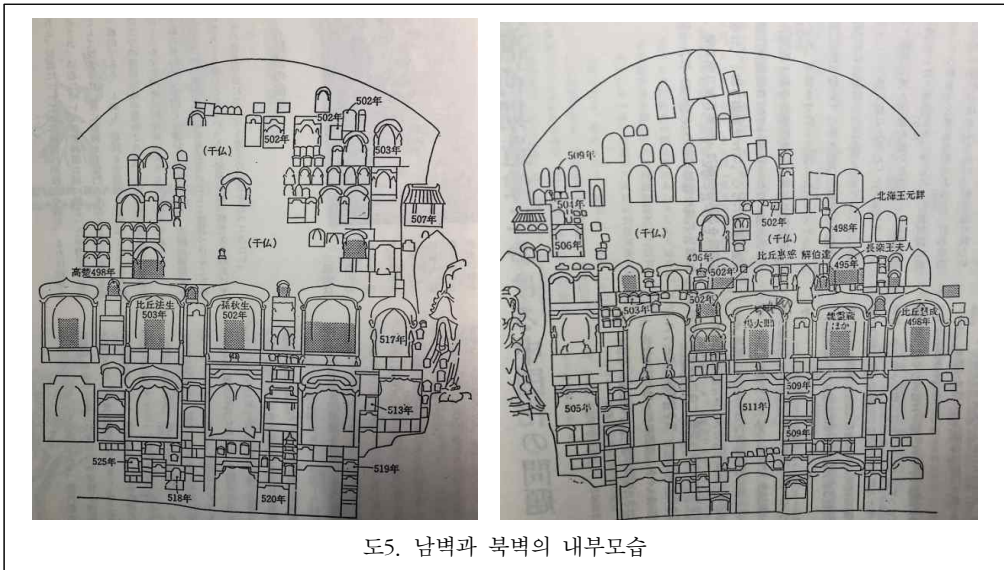
11) 구노미키 저, 최성은 역, 『중국의 불교미술』(시공사, 2001), p.43.

12) 溫玉成, 「龍門石窟에 나타난 北朝 雕刻藝術」, 『美術史論壇』6(한국미술연구소, 1998), p.148.



도4. 고양동 석굴 평면과 입면 구조

벽인 남·북벽들은 상·중·하 삼층의 구조이며, 각 층마다 큰 감에 불상들이 새겨져 있다. 치밀하고 정교한 조각들이 전체 굴을 완전히 메우고 있는데, 고양동 천정과 벽에 개착된 감수는 1,350여 개에 이른다(도5).



도5. 남벽과 북벽의 내부모습

고양동은 북위 초기 태화 18년(太和, 494년)에서 景明 元年(500년) 전후에 조성된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는 고양동 석굴 안에 용문석굴에서 제일 오래된 것으로 파악되는 태화 19년(495) 불

감의 명문이 존재하기 때문이다(도6).

이 조상기는 낙양으로 천도한지 채 몇 개월 안되어 새겨졌으므로, 황실에서 용문 석굴을 본격적으로 개착하기 이전에 고양동에는 이미 불상 조성이 간헐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그 다음 해인 태화 19년(496) 조상명이 있고, 498년 조상명이 여러 개가 있다. 제일 시기가 올라가는 495년 조상명은 북벽에 있어 이곳에서부터 조상활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 상층에 오래된 기년명이 많아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불감을 만들기



도6. 長樂王丘穆陵亮夫人尉遲造像龕

시작하면서 굴을 파들어간 것으로 짐작된다. 495년부터 502년까지의 명문 불상은 주로 북벽 상부에서 발견되기 때문에 점차 본존을 조성하고 굴을 밑으로 확장해 간 것으로 보인다. 조상기는 495년부터 시작하여 500년 전후가 가장 많고, 가장 늦은 것은 남벽 최하층의 525년 조상감이다¹³⁾. 고양동은 세 차례에 걸쳐 확장되었는데, 북위 말기와 동위·서위시대, 당대에 변모한 모습을 거쳐 지금에 이르렀다. 고양동의 개착된 시기는 대략 태화 18년(494)이며, 1차 시기는 상층의 불감을 조성하였으며, 완성시기는 景明 3년(502)이다. 2차 확장시기는 남북벽면의 위에서 두 번째 열의 8개의 대감을 조성한 것으로 正始 말년에 시작하여 대체로 永平년간(508-512)에 완성되었으며, 이 때 고양동의 기본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세 번째 조상활동은 벽면 가장 아래쪽 부분에서 이루어지는데, 시기는 대략 延昌이후로 계획이 미완성된 채 중지되었다.¹⁴⁾ 석굴 속에 작은 불감이 많아 供養洞의 성격을 지닐 가능성이¹⁵⁾ 제기될 정도로 많은 이들이 조상의 명복과 그들의 안녕을 위해 불상을 조성하였다.

2) 불상양식

고양동의 정벽은 서쪽 방향으로 정벽의 주준은 동쪽을 향하고 있다. 정벽의 주준불은 좌고 6.12m로 4.8m의 높은 방형 대좌위에 선정인에 결가부좌를 하고 있다. 높은 육계, 길고 둥근 열

13) 石松日奈子, 「龍門古陽洞初期造像における 中國化の問題」, 『佛教藝術』184(1989.5), pp.50-51.

14) 배재호 譯, 溫玉成 著, 『中國石窟과 文化藝術(上)』(경인문화사, 1996), pp.136-139.

15) 배재호, 『중국의 불상』(일지사, 2005), p.127.



도7. 고양동 정벽 삼존상

팔찌를 하고 보주를 쥐고 있다. 좌측보살의 모습은 우측과 거의 같고, 왼손에 팔찌를 한 채 정병을 들고 있다.¹⁷⁾

이 불보살상들은 운강석굴 20굴의 주존과 비교해보면 얼굴이 가름해지고, 어깨도 넓고 전체적으로 장대하기보다는 날씬한 모습이다. 즉 위대하고 당당하기 보다는 귀족적이고 정제된 세련미가 돋보인다 하겠다. 또한 고양동 불상은 운강석굴보다 중국화가 더욱 진행된 불상의 특징을 지닌다. 중국화란 중국 서예와 회화의 전통이 잘 살려진 평판적이고 선적인 특징을 갖고 있으며, 우아하고 고상한 긴 淸秀形의 모습이 특징적이다. 그리고 의복의 표현은 인도 간다라 불상과 달리 중국의 복식을 따른 것이다. 불상의 앞가슴이 U형으로 터지고 옷자락이 오른쪽 가슴에서 왼쪽 복부를 거쳐 왼쪽 속목으로 감아 흘러 내려갔으며, 군의를 묶은 띠매듭 자락이 길게 내려오도록 표현한 것이다. 이러한 모습은 고양동의 본존불에서 잘 나타나므로 중국화가 진전된 불상양식이라 할 수 있다.¹⁸⁾

남벽·북벽에는 각각 타원형의 벽에 4단으로 구분하여 빼곡히 감실과 상들이 조성되어 있다. 제일 상단의 둥근 부분에는 천불과 그 사이 사이에 감실을 조성하였는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

굴에 귀족적인 이목구비, 세장하고 각진 상체와 낮고 넓은 하체 등을 특징으로 한다. 오른쪽 얼굴과 오른쪽 어깨와 팔, 오른쪽 다리와 그 아래 대좌가 깨지고 탈락되어 보수한 흔적이 있다. 주존의 얼굴은 손상되었지만 비슷한 시기에 조성된 북벽 상층 감실 상의 불두와 비슷한 것으로 추정된다.¹⁶⁾ 대좌 아래쪽에는 부조상이 남아 있고 그 앞에는 사자 두 마리가 조각되어 있다. 좌우 보살상은 통통하고 복스러운 인상을 주고 얼굴에는 미소를 짓고 있다(도7).

본존 좌우의 협시보살 중 우측보살은 크기가 3.9m이며 상체에는 아무것도 걸치지 않았으나 하체에는 군의를 착용하고 있다. 복관연화좌 위에 서서 왼손은 가슴 앞에 두고 오른손에는

16) 원위청 저, 안영길 역, 앞의 논문(한국미술연구소, 1998), p.150 참조.

17) 보살 정병 아래쪽에 正始 3년(506)의 소감이 개착되어 있어 보살의 衣紋을 훼손시키고 있다. 이는 곧 보살상의 조성 연대가 이 해보다 이른 시기라는 것을 증명해준다. 문무왕, 「북위불교와 석굴조형 연구」(동국대학교 불교학과 박사학위논문, 2006), pp.130-131.

18) 문명대, 「중국 남북조 불상양식 연구의 과제」, 『미술자료』63(국립중앙박물관, 1999), p.104.

이 비교적 이른 시기에 조성된 것이다. 그리고 그 아래로 남벽과 북벽 모두 상·중·하 3층으로 구성되었는데, 각 층마다 4개의 큰 감실을 두고 불상을 조성하였다. 큰 감실 사이사이에도 조상기, 주악천과 불전설화, 수많은 소감들이 조밀하게 새겨져 있다.

정벽의 주존과 남·북벽 상단의 큰 감실의 주불들은 모두 선정인을 한 석가모니불이다. 큰 감실의 상들은 정벽의 주존불과 다르게 7구 모두 양주식 편단우견 형식의 착의법을¹⁹⁾ 하였다. 이러한 복식은 앞선 운강 20굴 불상의 착의법과 같은 형식이다. 그러나 이 상들 역시 얼굴이 가름하고 턱이 좁으며, 세부적인 의습선의 표현에서도 간격이 좁은 옷주름과 섬세하고 얇은 부드러운 천의 질감을 드러내는 표현에서 운강석굴과는 차이가 있다.²⁰⁾

그리고 북벽 상단 향우측에 498년 비구 慧成이 선정인의 불좌상을 봉안한 불감을 조성하였는데,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서역과 북방·한족의 복합적 성격을 보여준다. 즉, 서역식의 편단우견 불좌상과 漢나라식의 천의를 입은 보살상이 함께 새겨져 있다. 또한 불상 아래에는 박산향로 앞에 북방인의 옷을 입은 공양자들이 꿇어 앉아 있는 모습은 다양한 인물상을 표현한 것이다.

중단의 8개의 큰 감실 가운데 남벽 향좌측에서 2번째의 감실에 석가불과 다보불을 함께 안치한 이불병좌상을 제외하고, 나머지 7개 감실의 주불은 모두 交脚의 자세로 앉아 있는 미륵보살상이다. 얼굴은 거의 손상되었고 머리에는 높은 보관을 쓰고 신체는 긴 편이다. 오른손은 가슴 앞으로 들어 올리고 왼손은 무릎을 어루만지고 있다. 미륵보살상과 2제자, 2보살을 협시로 하는 오존형식의 배치구도와 유마문수설법도를 채용하고 있는 점도 중단에 새겨진 존상들의 공통사항이다.

즉, 3층의 구조에서 상단은 석가모니불상을, 중단은 미륵보살상을 조성한 것이다. 하단에는 다섯 개의 감이 있어서 7존상감, 천불 등이 새겨져 있다. 이외에도 고양동 천정과 4벽에 크고 작은 감들이 무수히 개착되었으며, 감의 수는 1,350여 개에 이른다.

고양동은 가장 초기에 조성한 굴로 큰 규모에 진 굴에 걸쳐 빈틈없이 정교하고 화려한 부조상을 새겨 불세계의 장엄함을 보여준다. 고양동의 감실 가장자리 장식 및 원형두광과 주형신광은 안쪽에는 연화문이 있고 중간에 화불이 있는 등 도안이 화려하다. 고양동에 사용된 장식 문양은 쌍룡·雙鳳·연화·幾何紋·화염문·雲紋 등이며 비천·伎樂·佛傳故事·사자·금강역사 등을 배합하여 다채롭게 나타내었다.

이렇게 용문석굴의 정교한 조상활동이 활발했던 것은 낙양에 기술이 뛰어난 장인이 많아서 가능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漢·魏 이래의 전통적 기법을 익힌 사람들의 후예들이 그 전통을

19) 4-5세기에 하서회량 일대를 양주라고 불렀는데, 이 시기의 석굴미술로 중요한 조상양식을 '양주양식'이라 한다. 이 양식은 5세기 후반에 대규모로 조영되었던 북위의 운강 석굴 조각 양식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구노미키 저, 최성은 역, 앞의 책(시공사, 2001), p.19.

20) 구노미키 저, 최성은 역, 앞의 책(시공사, 2001), p.43.

이어나가고, 이 위에 새로운 불상양식을 창조한 새로운 조각가들이 용문석굴의 불상 조성을 담당하였을 것이다.²¹⁾ 또한 국가에서도 석굴을 전문적으로 조성하는 인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였는데, 대표적인 기구로 ‘石窟署’를 예로 들 수 있다.²²⁾ 이러한 조각가들이 당시 낙양에 존재하였으므로, 예술적으로 뛰어난 용문석굴의 조상활동이 가능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3) 신앙배경

다음은 고양동 석굴이 어떠한 신앙적 배경에 의해 조성되었는지 살펴보겠다. 중국의 불교신앙 전개에 있어 법화신앙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3세기 후반경 중국에서 『법화경』이 번역된 이후, 과거-현재-미래로 이어지는 도식적 구조는 불상조영에도 나타나는데, 법화경에 등장하고 있는 多寶-釋迦-彌勒 불상이 주요 신앙의 대상이 된 것이다.²³⁾ 『釋老志』에 ‘석가모니가 前六佛의 뒤를 이어 이 땅에 왔으며, 그 뒤를 이어 미륵불이 올 것’이라고 기술한 것 처럼²⁴⁾ 이러한 신앙 요소는 북위시대의 석가불과 미륵불 조성을 중심으로 나타난다. 이는 운강석굴 조영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으며, 이어 용문석굴에서 더욱 성행한 것으로 보인다.

용문석굴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과거 다보불, 현재 석가불, 미래 미륵불로 이어지는 신앙적 특징이 조형적으로 나타났다.²⁵⁾ 북위 시대에 조성된 용문석굴 숫자는 25개이며, 불상의 숫자는 206개에 달한다. 조성된 숫자별로 보면 석가모니불 43, 미륵불 35, 다보여래 3, 정광불 2, 무량수불 8, 관세음보살 19등이다. 조성된 숫자만 보아도 석가모니불과 미륵불이 가장 앞서는 것을 알 수 있다.²⁶⁾

북위 시대의 대표굴인 고양동 벽면에 새겨진 불감은 법화경 사상을 반영하는 구조인 것을 더욱 생생하게 보여준다. 고양동 정벽의 주존은 석가불이며, 남북면의 3층으로 구성된 큰 불감 상단의 주존불은 모두 석가불이다. 그리고 중단은 미륵교각 보살상을 봉안했다. 이는 미륵이 석가의 계승자라고 하는 사상을 반영하는 것이며, 그 도상적 특징은 『법화경』의 사상이기 때문이

21) 문명대, 앞의 책(한언, 1994), p.136.

22) 『隨書』 「百官志 中」에 근거하면 석굴서를 관리하는 관직들에 관한 내용이 있었으며, 이러한 제도는 북위에서 시작되어 隨代를 거쳐 唐代까지 이르렀다 한다. 원위청 저, 안영길 역, 앞의 논문(한국미술연구소, 1998), p.171 참조.

23) 문무왕, 「中國 初期石窟에 나타난 法華信仰의 특징」, 『한국선학』31(한국선학회, 2012), pp.257-258.

24) 魏書 卷114, 志 第20, 「釋老志」 ‘釋迦前有六佛 釋迦繼六佛而成道 處今賢劫 文言將來有彌勒佛 方繼釋迦而降世’

25) 문무왕, 앞의 논문(2012), pp.278-279.

26) 문무왕, 앞의 논문(2012), pp.278-279.

다.²⁷⁾ 불상 존명의 구분 뿐만 아니라 조상기에 새겨진 명문의 내용은 법화경을 근간으로 한 사상이 고스란히 인용되고 있어, 고양동의 신앙적 배경을 살펴볼 수 있다.

고양동에는 58종에 달하는 조상기가 기록되어 있는데,²⁸⁾ 본 고에서는 법화경 사상과 관련된 조상기에 한해 살펴보고자 한다. 조상기 가운데 가장 오래된 기록은 북벽 상단 향후측에 있는 〈495년의 長樂王丘穆陵亮夫人尉遲造像龕〉이다. 내용은 장락왕과 장락왕의 부인인 위지가 죽은 자식을 위하여 미륵상을 조성하여 왕생이 아닌 해탈하여 삼악도를 끊고 모든 중생이 복받기를 기원하는 것이다.²⁹⁾

또한 북벽 상층 향우측의 〈498년의 北海王元祥造像龕〉에는 고양동 석굴조영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던 북해왕이 원정을 떠나면서 모자를 위해 미륵상을 조성한다는 내용을 기록하였다.³⁰⁾ 또한 〈法生이 503년에 조성한 남벽 상단에 새긴 조성기〉도 북해왕과 관련된다. 북해왕 원상의 공양승이었던 법생은 이 감에 당대 최고 권력자인 효문제와 북해왕 모자를 위해 조상을 새겨 놓았다. 이 감의 대좌 가운데 조상기가 새겨져 있으며, 좌우에는 북해왕과 관련된 공양인 행렬이 조각되어 있다.³¹⁾ 공양승이 행렬 제일 앞에서 행렬을 인도하고, 황족이 뒤를 따르며 시종들과 수행원들이 뒤 따르는 모습이다. 이들 옷의 표현은 중국 황족의 전통복장으로 입은 모습이며, 길고 날씬한 외모 역시 중국회화에서 표현된 한족의 모습이다. 신분의 구별은 인물의 크기로 나타내었다.

북해왕 조상감 아래에는 〈비구 慧成이 죽은 아버지를 위하여 선정인의 석가모니불상을 조성한 감〉이 있는데 완공은 498년에 이루어졌다.³²⁾

27) 塚本善隆, 『支那佛教史研究』 北魏篇(東京: 弘文堂書房, 1942), pp.523-525.

28) 왕들의 조상기가 7, 비구 11, 비구니 7, 邑社계열 등의 집단조상기가 16, 관직명이 있는 경우가 11로 주요계층을 알 수 있다. 문무왕, 「북위불교와 석굴조형 연구」(동국대학교 불교학과 박사학위논문, 2006), pp.128-136.

29) 水野清一, 長廣敏雄 著, 『龍門石窟の研究』(東京, 座右寶刊行會, 1943), p.298.

30) 북해왕 元祥은 황족으로 효문제의 이복 아우이다. 명문에는 성이 '탁발'이 아닌 '원'으로 기록되어 있어 황실이 改姓을 실천하는데 앞장섰다는 것을 보여준다. 북해왕 원상은 형 효문제와 더불어 남정에도 참여했으며 형의 생전뿐만 아니라 사후에도 막강한 권력을 지녔던 인물이다. 그러나 부에 대한 과욕으로 그의 모친 태비 고씨와 그의 가정을 불명예스럽게 만들고 즐겼다. 정현숙, 앞의 논문(2006), pp.281- 282.

31) 이 감은 침공감으로 감실 안에는 1불 2보살이 조각되어 있다. 대좌 가운데 조상기가 새겨져 있으며 좌우에는 공양인 행렬이 조각되어 있다. 남자 공양인 행렬은 왼쪽에 있으며 앞의 세 사람은 비구로 각각 이름이 적혀 있다.

32) 완공은 태화22년(498년)이며, 침공감으로 침공에 꽃으로 동자 11존을 묶어 장식했으며 그 사이에 연화가 조각되어 있다. 감내의 주존은 편단우견형식의 착의법을 하였다. 이 조상감의 조성기도 용문 20품 가운데 하나인데, 특히 고양동 석굴을 '石窟寺'로 불렀음을 알 수 있다. 闕文儒, 常一靑 著, 『龍門石窟研究』(書目文獻出版社, 1995), p.20.

〈廣川王 관련 조상기〉에는 광천왕의 祖母 太妃가 죽은 남편을 위하여 미륵상 1구를 조성하였음과 함께, 손자를 위하여 불교에 귀의한 마음을 표현하고자 미륵상 1구를 함께 조성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이 두구의 미륵상은 경명3년(503)과 4년(504)에 조성되었다. 또한 광천왕 대비를 위해 조성한 두구의 석가상이 광천왕대비의 조성기 우측에 있다. 이는 함께 동참한 귀족들의 조상기로 조상을 통해 공양하는 것이다.³³⁾

또한 〈安定王 관련 조상기〉에는 그의 죽은 친족을 위하여 석가상을 조성하면서 龍華世界에서 만나기를 기원하였음을 적고 있다.³⁴⁾ 석가상을 조성하면서도 미륵 용화세계에서 만나기를 기원하는 태도로 볼 때 당시 법화 사상의 영향을 받은 미륵왕생 신앙이 얼마나 유행하였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³⁵⁾

이처럼 고양동은 과거불의 계승자로서의 석가불과 석가불의 계승자로서 미륵에 대한 신앙을 반영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용문 고양동은 현세의 부처인 석가와 미래에 올 미륵불을 통해 이 세상의 정도를 갈구하는 당시 불교신앙을 가장 잘 보여주는 조상활동이라 할 수 있다.

3. 골굴석굴과 용문석굴 고양동과의 비교

1) 골굴석굴 조성에 모범이 된 용문 석굴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용문석굴 고양동은 북위시대에 개착된 대표굴이다. 그리고 한국의 골굴석굴은 마애불의 조성시기가 통일신라 후반으로 보는 것이 학계의 정설이기 때문에 통일신라 시대 후반에는 존재했던 것이 확실한 석굴이다.³⁶⁾ 골굴석굴의 개착시기는 이보다 올라갈 가능성도 많지만,³⁷⁾ 용문석굴 고양동이 골굴석굴 보다 이른 시기에 개착된 것은 사실이다. 앞서 조성된

33) 문무왕, 위의 논문 (2012), pp.279-280.

34) 水野清一, 長廣敏雄 著, 『龍門石窟の研究』(東京,座右實刊行會, 1943), p.304.

35) 문무왕, 위의 논문 (2012), pp.279-280.

36) 문명대, 「골굴사 석굴구조와 마애장륙석가불좌상의 의의」, 『강좌 미술사』50(한국미술사연구소, 2018. 6), pp.21-42 참조.

37) 골굴석굴의 창건 및 연역을 전하는 정확한 기록은 대부분 조선 후기의 것이다. 그러나 『기림사 사적기』에는 6 세기 중반 이후 원효대사가 기림사를 증축했다고 전하는데, 『삼국사기』에는 그가 입적하기 전까지 穴寺에서 거주하였다고 하여 기림사의 증축과 함께 골굴에서 수련과 생활을 했던 것으로 짐작된다. 또 당시까지 골굴의 공적인 명칭은 ‘혈사’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혈사는 백제 웅진기(5 세기 후~6 세기초)에서도 암반에 석굴 사원을 둔 4 방위 수호의 호국사찰로 등장하는데, 특정 종파와 상관없이 당시 석굴 사원을 지칭하는 보편적인 용어였던 것으로 이해된다. 한동수·이성호, 「경주 골굴암 석굴 전설의 건축적 원형」, 『정통석굴사원 골굴사의 문화와 석굴

용문 석굴은 골굴석굴을 포함한 한국의 석굴 사원 조성에 많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짐작된다.

골굴석굴을 조성할 당시 용문 석굴은 신라에 많이 알려져 있는 석굴로 신라의 구법승들이 자주 찾는 곳이었다. 이는 용문석굴 빈양동에서 160여 미터 거리에 있는 ‘新羅僧造龕’이라는 명문이 새겨져 있는 신라승이 조성한 감실의 존재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굴은 타원형으로 정벽에는 3구의 불상을 봉안한 흔적이 있으나 결실되어 남아 있지 않고, 크기도 수행승 1명이 앉아 선정에 들 수 있는 작은 규모의 굴이다. 낙양은 당시 장안과 함께 국제적인 불교의 중심지로서 인도와 서역은 물론 우리나라와 일본의 승려들이 구법 활동을 했던 중요한 곳이다. ‘신라승’의 명문이 고신라인지, 통일신라인지 불분명하지만 삼국시대부터 용문석굴은 우리나라와 상당한 관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신라승조감에서 250m 쯤 가면 연화동 석굴이 있는데, 이 곳에서도 우리나라계 공양인 3인의 부조된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앞에는 병향로를 든 남자 1인, 뒤에는 2명의 여인이 따르고 있는데 복장이 고구려 벽화에 나오는 인물들의 모습과 흡사하기 때문이다.³⁸⁾

그러므로 용문석굴은 우리나라의 순례승이나 사절들이 빈번히 방문하였던 곳이며, 특히 7세기 후반에 당나라에 유학 갔던 신라 구법승들과 연관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용문 석굴을 방문했던 구법승들은 신라에 돌아와 석굴을 축조하는데 용문 석굴을 모티브로 삼았을 개연성이 높다.

용문석굴은 외양의 모습에서도 골굴석굴과 여러 면에서 비슷하다. 인도와 중국 석굴이 암벽면에 굴을 개착한 방식은 석굴암의 축조식이 아닌 골굴석굴과 같은 개착식이다. 암반의 규모는 용문석굴이 훨씬 크지만 전체적인 조형감에서 유사함을 느낄 수 있다. 골굴석굴은 하나의 커다란 암벽산에 가로 세로로 여러 굴을 층층이 뚫어, 굴과 굴 사이를 연결시킨 모습이다. 절벽의 암면 상단에 거대한 마애불이 조성되어 있고, 암봉 여기저기에 크고 작은 동굴이 뚫려 있는데, 이를 좀 더 뚫고 다듬어 인공을 가한 석굴이다. 골굴의 입구는 큰 차이티야굴인 법당굴이고 여기서 인공으로 다듬은 계단길을 타고 오른쪽으로 가면서 아래 위로 오르내리면서 가장 상단의 마애불상이 있는 강당굴에 이르는 구조이다(도8).



용문석굴은 가운데 이수를 끼고 양 도8. 골굴석굴 전경

구조』(사 한국미술사연구소, 2016. 12), p.90.

38) 문명대, 앞의 책(한언, 1994), pp.144-145.

암벽면에 가로로 층층이 굴을 뚫은 대규모의 석굴이다. 용문석굴은 가로로 길게 개착된 석굴들이 층층으로, 동에서 서쪽 끝단에 이르도록 조성되어 있다. 그러나 멀리서 바라보면, 골굴석굴 상단에 커다란 마애불을 조성한 것과, 용문석굴의 서쪽 끝단에 봉선사동을 두어 큰 불상을 봉안한 모습이 유사하다. 석굴사원에 대불을 봉안하는 것은 중국석굴사원에서 이르기부터 시작되며, 아프가니스탄의 바미안대불의 예처럼 인도석굴의 개착 초기부터 나타난다. 이러한 석굴사원의 전통적인 배치가 골굴석굴 조성에 기반이 된 것으로 추정된다.

2) 석굴구조

고양동 석굴 평면은 말발굽모양이며 둥근 천정을 한 구조이다. 높이가 11.1m, 넓이 6.9m, 깊이 13.55m이다. 굴 내부 정벽에 주존불을 배치하고 내부 벽들에 수많은 감실을 조성하여 불상을 봉안한 형태이다.

골굴석굴의 예배굴도 기본적으로 U자형의 말발굽형 평면으로 구성되어 있다.³⁹⁾ 현재 관음전의 현관을 걷고 내부 구조도 많이 달라졌지만 이전에는 전실이 있었고, 본실의 안쪽에 불단이 있었다고 한다.⁴⁰⁾ 1960년대 조사한 내용을 보면 가장 면적이 넓은 이 예배굴은 너비 5.4m, 깊이 5.3m, 높이 6m이다. 본실의 입구에서 약 4m 지점의 왼쪽 석벽에 윤곽만 확인되는 마애불좌상이 부조되어 있었으며, 입구의 양벽에 소형 감실이 조성되어 있었다고 보고되었다. 현재 모습은 전실의 천정을 합성수지 같은 것으로 바르고, 입구에 목조건축물을 만들어 하나의 법당이 된 완전히 변형된 상태이다.

이처럼 용문석굴 고양동과 골굴석굴의 법당굴은 기본적으로 U자형의 말발굽형의 평면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리고 불상을 봉안하였다는 점에서도 유사하며, 불상 앞에 천정이 높은 장방형의 넓은 공간을 마련하여 많은 인원들이 예배를 할 수 있도록 한 구조도 유사하다 할 수 있다. 또한 내부에 거처할 수 있도록 앞에 목조가구가 설치되어 있었던 점도 공통점이다.

그러나 골굴석굴은 법당굴과 수행굴이 구분되어 있었다. 하나의 예배굴과 10개의 승방굴의 구조는 전형적인 인도식 승방굴이 아닌 별도의 10개의 승방굴이 각기 존재한 형식이라고 할 수 있다. 승방굴의 형식은 자연 굴실을 인공으로 확장하고 다듬은 굴실로 1인 내지 2인 내외가 주거할 수 있는 형태로 암벽 여기저기 부정형으로 배치되어 있다.⁴¹⁾ 이 굴들은 규모가 작고 크기가 일정

39) 1967년에는 문명대교수에 의해 기왕에 조사한 바를 토대로 골굴석굴의 10개 굴실의 실측치가 발표되었다. 문명대, 「한국석굴사원의 연구」(경북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1967)

40) 문명대, 앞의 논문(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67. 2), p.90 참조.

41) 문명대, 앞의 논문(한국미술사연구소, 2016. 11) 참조.

하지 않지만, 전실 목조건물이 앞에 가구되어 있어 사람이 기거하면서 생활하고 수행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다. 이러한 모습은 1686년 정시한이 『산중일기』에 표현한 것 처럼 “굴 앞에는 假簷과 窓壁을 만들고 색을 칠하여, 彩閣을 바라보니 바위 사이에 대여섯 閣이 걸려 있어 그림 같았다”는 것에서 그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다.⁴²⁾ 마치 금강산 보덕암처럼 암벽에 목조가구를 끼워 넣어 마치 멀리서 보면 그 집은 ‘공중에 매달려’ 있는 것 같은 기이한 모습으로 비춰졌을 것이다.

골굴석굴이 하나의 예배굴에 여러 승방굴을 둔 것에 비해 용문 석굴은 불상유무에 관계없이 예배굴과 승방굴이 나누어져 있었을 가능성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현재로는 알 수 없다. 우리나라와 중국의 석굴사원은 인도와 달리 석굴에서 수행하는 기간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모두 추운 겨울을 제외하고 수행공간으로 활용되었을 것으로 보이나 고양동은 이러한 구분이 없이 혼용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인도 석굴은 기원전 2세기~기원후 3세기 경과, 기원후 5세기 후반~8세기 경인 두 시기로 구분하여 전자에 속하는 석굴을 전기굴이라 하며, 후자에 속하는 석굴을 후기굴이라고 한다. 전기굴과 후기굴의 가장 큰 차이점은 불상의 유무인데, 이는 예배굴에서 시작되었다. 이후 후기굴에는 예배굴 뿐만 아니라 승방굴에도 불상이 새겨지기 시작한다. 그러므로 용문 석굴은 이미 승방굴에도 불상을 봉안하여 불상의 유무로 예배굴과 승방굴을 구분하기 어려운 석굴이다. 특히 고양동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석굴 내부의 전 벽면에 조상과 그와 관련된 명문으로 가득하였다. 이는 조상을 공양함으로 이를 통한 구원에 더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골굴석굴의 수도 처로서의 수행굴과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3) 조성사상

다음은 조성사상의 비교이다. 북위시대의 운강석굴에 이어 용문석굴의 조성사상도 법화경 사상에 근거하고 있음을 앞에서 살펴보았다. 특히 고양동에는 조상들과 함께 조성기가 있어 당시 어떠한 신앙적 배경에 의해 불상들이 조성되었는지를 파악할 수 있었는데, 그 도상적 특징을 묶

42) 조선 후기 골굴석굴에 대해 정시한은 1686년(숙종 12) 5월 16일 불국사에 이어 석굴암에 올랐다가 내려와, 골굴에 들러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골굴의 앞쪽 고개에 올라 돌봉우리를 바라보니 돌의 형태가 기이하고 괴상하였다. 층층에 굴이 있고 굴 앞에는 假簷과 窓壁을 만들고 색을 칠하였다. 彩閣을 바라보니 바위 사이에 대여섯 閣이 걸려 있어 그림 같았다. 곧바로 法堂窟에 들어가 앉으니 법능이 앉아 있다가 자리를 마련하여 마주 대하였다. 잠시 앉아 있다가 법능에게 불을 지피 식사를 준비하게 하였다. 곧이어 修敏과 병이 난 노인 김운길과 함께 獅子窟에 오르니 비어 있었다. 說法窟과 正廳窟 터를 지나 僧堂窟에 이르니 비어 있어 達磨窟 즉 수민이 거주하는 곳에 이르렀다. 다시 올라 禪堂窟에 이르니 거주하는 雙性 및 김운길의 아들이자 승려인 善淸과 善晳는 나가고 없는데, 방은 매우 정결하였다.” 愚潭 丁時翰, 『山中日記』 下, 원주사료총서 제11권, 원주시, 2012년, pp.270-274.

을 수 있는 사상은 『법화경』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런데 골굴석굴도 법화경의 주불인 항마촉지인의 석가불상이 주불로 봉안되었으며, 토함산 석굴과 대왕암과의 관계 등으로 미루어보아 법화경과 신인종 사상에 의하여 조성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골굴석굴의 마애불이 동해의 대왕암쪽으로 동향하고 있어 동해 외적 방어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⁴³⁾ 그러므로 용문석굴 고양동의 조영 사상인 법화경 사상은 우리나라 삼국시대 불교조각의 조성사상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던 만큼, 이후 이러한 사상적 영향이 골굴석굴로 이어지고 있음을 이해할 수 있다.

IV. 맺음말

이상, 골굴석굴과 용문석굴 고양동을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먼저, 용문석굴 고양동의 기본 현황에 대해 파악해 보았다. 용문석굴 고양동은 용문 석굴 가운데에서도 가장 먼저 개착되고, 규모도 크다. 특히 용문 20품 가운데 19품이 고양동에 있을 정도로, 그 안에 새겨진 여러 조상기는 당시 석굴개착과 불상조성, 그리고 조성 신앙에 대해서도 풍부한 자료를 제공하므로, 불교미술사에 매우 중요한 석굴이다.

용문석굴 고양동은 말발굽형의 기본 구조에 정벽에 석가삼존의 불상을 봉안하고, 양 벽면에 3층의 감을 설치하여 많은 조상을 새겼다. 이 불상들은 운강 석굴에서 더욱 중국화로 진전된 불상 양식을 나타내는 중요 불상으로, 석가상과 미륵보살상이 주로 봉안되었음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용문 고양동에 새겨진 조성기를 바탕으로 조영사상을 살펴보았다. 불상 존명의 구분 뿐만 아니라 조상기에 새겨진 명문의 내용은 법화경을 근간으로 한 사상이 고스란히 인용되고 있어, 신앙적 배경은 법화경 사상임을 살펴볼 수 있었다. 고양동은 과거불의 계승자로서의 석가불과 석가불의 계승자로서의 미륵불에 대한 신앙을 반영하였다. 그러므로 용문 고양동은 현세의 부처인 석가와 미래에 올 미륵불을 통해 이 세상의 정토를 갈구하는 당시 불교신앙을 가장 잘 보여주는 조상활동이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골굴석굴과 용문석굴 고양동을 비교하여 고찰해 보았다. 용문석굴 고양동은 개착 시기가 골굴석굴보다 앞서지만, 신라시대부터 구법승들이 자주 방문했던 곳으로, 골굴석굴 개착에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기본 구조는 두 석굴 모두 말발굽형의 U자형 평면이며, 입구에 목조 건축을 하였던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골굴석굴이 하나의 예배굴에 10개의 승방굴로 구

43) 이에 대해서는 문명대, 「골굴사 석굴구조와 마애장륙석가불좌상의 의의」, 『강좌 미술사』50(한국미술사연구소, 2018. 6), pp.21-42 참조.

성되어 있는 것에 비해, 용문 석굴은 예배굴과 승방굴로 구분하기 어려운 구조임을 살펴보았다. 특히 고양동 석굴 안에 새겨진 다양한 조상을 보면, 마치 하나의 굴을 공양하는 것처럼 구성되어 있어 골굴석굴의 수행굴과는 거리가 먼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두 석굴의 조영사상은 법화경 사상에 기반을 두어 용문석굴 고양동이 우리나라 불상 조성에도 큰 영향을 미쳤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제어(Key Words)

골굴 석굴(Golgul Caves), 용문 석굴(Longmen Caves), 고양동(Guyangdong), 법화사상(Lotus Sutra), 차이티야굴(Caitya-cave), 비하라굴(Vihara-cave). 한국석굴사원(Korean Stone Cave Temples)

| 참고문헌 |

- 구노미키 저, 최성은 역, 『중국의 불교미술』, 시공사, 2001.
- 벤자민 로울랜드 저, 이주영 역, 『인도미술사』, 예경, 1996.
- 마쓰장(馬世長)의 저, 양은경 역, 『중국불교미술』, 다홀미디어, 2006.
- 문명대, 『서역 실크로드 탐사기』, 한언, 1994.
- 미야지 아키라 저, 김향숙·고정은 역, 『인도미술사』, 다홀미디어, 2006.
- 배재호 역, 溫玉成 著, 『中國石窟과 文化藝術(上)』, 경인문화사, 1996.
- 배재호, 『중국의 불상』, 일지사, 2005.
- 水野清一·長廣敏雄 著, 『龍門石窟の研究』, 東京, 座右寶刊行會, 1943.
- 閻文儒, 常一青 著, 『龍門石窟研究』, 書目文獻出版社, 1995.
- 丁時翰, 『山中日記(下)』, 원주사료총서 제11권, 원주시, 2012.
- 塚本善隆, 『支那佛教史研究』 北魏篇, 東京: 弘文堂書房, 1942.
- 김선희, 「인도 나식 석굴사원 시론」, 『인도철학』49, 인도철학회, 2017.
- 김준오, 천득염, 「인도 석굴사원의 Relief Stupa 연구」, 『건축역사연구』21권 4호, 통권 83호. 건축역사연구회, 2012.
- 문명대, 「韓國石窟寺院의 研究」,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67.
- 문명대, 「한국석굴사원의 연구」, 『역사학보』38, 역사학회, 1968.
- 문명대, 「중국 남북조 불상양식 연구의 과제」, 『미술자료』63, 국립중앙박물관, 1999.
- 문명대 외, 『정통석굴사원 골굴사의 문화와 석굴구조』, 한국미술사연구소·골굴사, 2016.
- 문명대, 「골굴사 석굴구조와 마애장륙석가불좌상의 의의」, 『강좌 미술사』 50, 한국미술사연구소, 2018.
- 문무왕, 「북위불교와 석굴조형 연구」, 동국대학교 불교학과 박사학위논문, 2006.
- 문무왕, 「中國 初期石窟에 나타난 法華信仰의 특징」, 『한국선학』31, 한국선학회, 2012.
- 石松日奈子, 「龍門古陽洞初期造像における 中國化の問題」, 『佛教藝術』184, 1989.5.
- 양은경, 「중국 불교석굴의 개념과 분포, 발달사」, 『중국사연구』29, 2004.
- 溫玉成, 「불교예술과 중국문화-3~6세기의 중국석굴사예술」, 『미술사연구』10, 미술사연구회, 1996.
- 溫玉成, 「龍門石窟에 나타난 北朝 雕刻藝術」, 『美術史論壇』6, 한국미술연구소, 1998.
- 원위정 저, 안영길 역, 「龍門石窟에 나타난 北朝의 彫刻藝術」, 『美術史論壇』6, 한국미술연구소, 1998.
- 정현숙, 「문헌을 통해 본 북위의 국가이념과 용문 고양동의 연관성」, 『서지학연구』35, 서지학회, 2006.
- 천득염, 김준오, 「龍門石窟의 塔形浮彫 研究」, 『건축사역사연구』20, 한국건축역사학회, 2011.
- 한동수·이성호, 「경주 골굴암 석굴 전실의 건축적 원형」, 『정통석굴사원 골굴사의 문화와 석굴구조』, 한국미술사연구소, 2016.

용문석굴 고양동과 골굴석굴의 비교연구

이 분 희

용문석굴은 중국미술사에서 북위시기부터 당대까지의 석굴사원의 조영과 불상양식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석굴사원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석굴사원에도 그 영향을 많이 끼쳤으며, 조성기도 남아 있어 풍부한 자료를 제공한다.

본고에서는 특히 용문석굴 가운데 가장 먼저 개착되었으며, 규모도 큰 고양동 석굴과 우리나라 석굴사원인 골굴석굴을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용문석굴 고양동은 용문 20품 가운데 19품이 있을 정도로 서예사적으로 중요한데, 그 안에 새겨진 여러 조상기를 통해 당시 석굴개착과 불상조성, 그리고 조성 신앙에 대해서 알 수 있다. 용문석굴 고양동은 말발굽형의 기본 구조이며, 정벽에 석가삼존의 불상을 봉안하고, 양 벽면에 3층으로 나누어 많은 감실을 만들고 대규모의 불상들을 조성하였다. 불상들은 운강 석굴보다 더욱 중국화로 진진된 불상양식을 보이며, 석가상과 미륵보살상이 주로 봉안되었다. 존명의 구분뿐만 아니라 조상기에 새겨진 명문의 내용을 파악해보면 법화경 사상을 근간으로 조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골굴석굴과 용문석굴 고양동을 비교해보면, 용문석굴 고양동은 개착시기가 골굴석굴보다 앞서지만, 신라시대부터 구법승들이 자주 방문했던 곳으로, 골굴석굴 개착에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기본 구조는 두 석굴 모두 말발굽형의 U자형 평면이며, 입구에 목조 건축을 하였던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골굴석굴이 하나의 예배굴에 10개의 승방굴로 구성되어 있는 것에 비해, 용문 석굴은 예배굴과 승방굴로 구분하기 어렵다는 차이가 있다. 그러나 두 석굴의 조영사상은 법화경 사상에 기반을 두어 용문석굴 고양동이 우리나라 불상 조성에도 큰 영향을 미쳤음을 확인할 수 있다.

Comparison of Longmen Caves Guyangdong and Golgul Caves

YI BOONHEE

Longmen Caves are important cave temples in Chinese art history to understand cave temple construction and Buddha image style from the dynasty of BeiWei to the present days. They also had a great influence on Cave temples in Korea, and inscriptions of construction remain, providing abundant data. In this paper, we compared and explored Guyang Caves, the first cut among the Longmen Caves, and Golgul Caves, a Korean Cave temple.

Longmen Guyang Caves have 19 out of 20 Longmen, and several inscriptions engraved therein also reveal the caves cutting, Buddha image construction, and construction faith at the time. Longmen Guyang Caves enshrines the Buddha image in the Shakyamuni Triad on the wall with the basic structure of a horseshoe, and a large number of tabernacles were created by dividing them into three floors on both walls and constructing large-scale Buddha images. Buddha images show a Buddha image style that has more evolved into Chinese painting than Yungang Caves, and the Sakyamuni image and the Maitreya image were mainly enshrined. To examine the contents of the letter markings on the construction inscriptions as well as the iconographic specification, it can be seen that it was constructed based on Lotus Sutra thought.

When comparing Golgul Caves and Longmen Guyang Caves, the cutting time of Longmen Guyang Caves is ahead of that of GolgulCaves, but it was the place visited by monks studying abroad since the Shilla era, and is believed to have influenced the cutting of Golgul Caves. The basic structure of both two caves is a horseshoe-shaped U-shaped plane, and at the entrance, there is a common thing that there used to be a wooden building. However, compared to Golgul Caves consisting of 10 monks common room caves in one worshipping cave, the difference is that Longmen Caves are difficult to distinguish between worshipping caves and monks common room caves. However, the construction thought of the two Caves is based on the Lotus Sutra thought, confirming that the Longmen Guyang Caves had a great influence on the Buddha image construction in Korea.

논문투고일 2020년 4월 8일 | 논문심사일 2020년 4월 24일 | 논문심사완료일 2020년 5월 5일